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BC: 전문가들, “연준 관리들, 향후 인플레이 예상 못 한다”
- Bloomberg: 미 기존 주택 판매 2개월째 감소... 집값은 상승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현재 상황 계속되면 달러 강세 보인다”

[미국 생활]

- CNBC: 밀레니엄 세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원유]

- CNBC: 바이든, 독립 기념일에 앞서 휘발유 1백만 배럴 방출

[인공지능]

- Bloomberg: 엔비디아, “AI확장 위해 델은 핵심 파트너”

[미중 경제]

- WSJ: 미국, ‘대중 관세 인상’에 유럽의 공조 원해
- WSJ: 중국 비즈니스 그룹, 자동차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 고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CFPB,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도 신용카드처럼 감독 필요”
- CNBC: Google, 광고주를 위해 3D 이미지 포함한 생성형 AI 도구 출시한다
- CNBC: 아마존, AI로 업그레이드 된 ‘알렉사 비서’에 구독료 부과
- WSJ: 타겟, 또다시 매출 하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BC: Fed officials seem like they have ‘no idea’ what is going on with U.S. inflation, strategist says

전문가들, “연준 관리들, 향후 인플레이 예상 못 한다”

- 투자사 GAM의 투자 디렉터인 Julian Howard는 “연준 관리들은 미국의 인플레이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지난 수 주 동안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당초 예상보다 하락도가 낮다면서 언제 금리가 인하될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Howard는 “인플레를 예상하기가 지극히 힘들다”면서 “그들은 인플레이가 어찌 될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home sales post second straight monthly drop; house prices jump**미 기존 주택 판매 2개월째 감소... 집값은 상승**

- 모기지율과 집값 상승이 수요에 부담을 주어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4월에 미 기존 주택 판매 수가 기대치 않게 감소했다.
- 또한 오늘 수요일 미 부동산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 재고량이 2년 반 만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주택 판매는 2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는 높은 모기지율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구매 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Goldman Sees More Dollar Strength Amid Fight Against Inflation****골드만삭스, “현재 상황 계속되면 달러 강세 보인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를 유지할 경우 달러는 더 오랫동안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는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트레이더들은 4월 인플레이 강세 지표 이후 지난주에 연준의 2차례 금리 인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스왑 시장은 금년 말에 4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11월 정책 미팅에서 총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 달러는 올해 들어 G-10 회원국과 비교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룸버그 지수는 거의 3% 상승했다.
- 현재 영국, 유럽 지역과 캐나다는 6월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CNBC: Millennials are ‘quiet vacationing’ rather than asking their boss for PTO: ‘There’s a giant workaround culture’****밀레니엄 세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 미국인 1천1백70명을 Harris Poll이 설문 조사한 결과 미국 근로자들의 78%가 자신들은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특히 젊은 전문직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마감을 지켜야 하거나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유급 휴가를 신청하면 '게으름뱅이'로 보일까 봐 유급휴가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대신에 밀레니엄 세대의 4명 중 3명은 상사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 Slack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 메시지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규 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예약 처리한다는 것이다.

CNBC 기사

[원유]**CNBC: Biden to release 1 million barrels of gasoline to reduce prices at the pump ahead of July 4****바이든, 독립 기념일에 앞서 휘발유 1백만 배럴 방출**

- 연방 에너지국은 여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여름 운전 시즌의 대비해 낮은 휘발유 가격을 유지하도록 휘발유 1백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북동부 지역의 보유 오일을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메모리얼 데이와 7월 4일 독립기념일 사이에 방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휘발유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다.

CNBC 기사

[인공지능]**Bloomberg: Nvidia CEO Says Dell Partnership Is Key in Its Push to Expand AI****엔비디아, “ AI확장 위해 델은 핵심 파트너”**

- 엔비디아의 CEO인 빌 황은 델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고객들에게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와 기관들이 자체의 'AI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그는 “생성형 AI 능력을 전세계 모든 기업에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박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 델은 정부기관과 기업체에 컴퓨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이다. 엔비디아는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일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등)에 의존하여 작년에 매출이 급증했다. 델은 이러한 대규모 업체보다는 작은 규모의 엔비디아의 고객이다.

- 엔비디아의 확장 계획은 기관과 기업이 자체 AI 능력을 개발하여 제품 수요를 높이는 데 달려있다. 이를 위해 델이 제공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킹,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 황은 델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Bloomberg 기사

[미중 경제]

WSJ: The U.S. Raised Tariffs on China. Now It Wants Europe's Support. 미국, '대중 관세 인상'에 유럽의 공조 원해

-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 급증을 막기 위해 유럽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동맹국 간 단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주, 미국은 자국 산업을 중국의 저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 1백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했다.
- 지난 화요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연설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유럽이 미국의 관세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과 전 세계 기업의 생존력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입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회의적이다. 그들은 높은 관세가 세계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 유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WSJ 기사

WSJ: Chinese Business Group Warns of Tariff Increases on Car Imports in Response to U.S., EU Moves 중국 비즈니스 그룹, 자동차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 고려

-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비즈니스 그룹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과 EU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 브뤼셀에 위치한 EU 주재 중국 상공 회의소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내부자들로부터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인 추가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상공회의소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와 브뤼셀의 반보조금 조사 등의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잠재적 조치는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Buy Now, Pay Later Needs Credit Card-Like Oversight, CFPB Says**CFPB,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도 신용카드처럼 감독해야 한다”**

- 수요일, 미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기존 신용카드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BNPL(Buy Now, Pay Later) 업체도 분쟁을 조사하고 반품된 제품 또는 무효화 된 서비스에 대해 환불하며 청구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다.
- 이는 BNPL 업체가 지금보다 더 신용카드 업체처럼 긴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BNPL 업체가 소비자의 단기 할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CFPB의 Rohit Chopra 국장은 “우리는 신용카드를 플라스틱 조각으로 생각하지만, 신용카드는 디지털 형태의 신용 결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를 포괄합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Google is letting retailers include 3D images in AI-generated ads
Google, 광고주를 위해 3D 이미지 포함한 생성형 AI 도구 출시한다

- 지난 화요일, 구글은 기업을 위한 더 많은 AI 도구를 출시하며, 광고주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프로모션에 몰입도 높은 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례 컨퍼런스에서 구글은 앞으로 광고주들이 브랜드 또는 기업 이름이 포함된 검색어에 대해 “더 풍부한 결과를 제공하는” 시각적 브랜드 프로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동영상과 요약도 광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NBC 기사

CNBC: Amazon plans to give Alexa an AI overhaul — and a monthly subscription price**아마존, AI로 업그레이드 된 ‘알렉사 비서’에 구독료 부과**

- 아마존이 10년 된 알렉사 음성 비서를 인공지능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용자에게 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아마존은 올해 말 알렉사의 대화형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구글과 Open AI를 비롯한 회사들의 새로운 생성형 AI 기반 챗봇과 경쟁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알렉사 구독 서비스는 연간 1백39달러의 프라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확한 구독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NBC 기사

WSJ: Target Reports Another Sales Drop

타겟, 또다시 매출 하락

- 타겟의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지만, 성장세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 매출은 5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3.7% 감소하여 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영진은 가정용품, 가구, 의류, 식품 판매 등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 타겟 CEO Brian Cornell은 높은 물가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하지만 전반적인 수요는 여전히 탄력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량적인 지출에서 개선이 있었기에,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美 채권시장서 금리인하 기대 조정..."올해 인하 폭 0.5%p 미만"

"FOMC의사록 등 기다리며 신중론 유지...서방 채권시장 대체로 강세"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로 지난주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일부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스왑시장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을 0.5%포인트 가까이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0.4%포인트가량으로 내려갔고 첫 금리 인하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0.25%포인트씩 연내 두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속에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도 늘었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